

부처님오신날

아름다운 삶을 위한 서원

당신,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나를 위해 거기에 계시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거기 당신이 계시기에  
나는 여기서 행복합니다.

당신을 위해 나는 달려가고  
당신을 위해 나는 무엇이든 나누고 싶으니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저 옛날, 상불경 보살이  
만나는 사람마다 공경의 예를 갖추었듯이  
그래서 무량의 공덕을 쌓았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공경하고 무엇이든 나누고 싶습니다.  
내 작은 나뭇잎의 공덕이 쌓이고 쌓여  
그 공덕의 그늘이 세상을 덮고 삼라만상에 깃들 때까지  
당신께 달려가고 무엇이든 나누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거기 계시는 당신  
나의 손길을 기다리는 당신이 있어  
당신의 자성에 비추어 나이고  
나의 본래 자리를 돌이켜 당신이기에  
고통과 희망도 본래 하나이던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있는 거기에 나는 항상 있으니  
내가 있는 여기에도 항상 당신은 계시니까.  
눈길만 주어도 마음으로 합일하고  
손짓만 하여도 두길일 수 없으니  
지금 여기서 나는 당신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내게 오시는 날  
내가 당신에게 달려가는 날  
나와 하나인 당신의 손잡고 흥겨운 날  
당신인 나의 두 손에 연등 환하게 밝혀 든 날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이 세상 인연 다하도록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당신을 위해 나누겠습니다.  
다함이 없이 나누겠습니다.

- 임연태 기자 -



서울 아산 중앙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불자 김양순씨가 종이 연꽃과 연등을 들고 환자 이춘봉씨를 찾아 '희망'을 얘기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yogo@buddhapia.com

사저질 아름다운 공간  
vivaldi  
한라비발디

漢拏 명품에는 '격' 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속되지 않고 부드럽게 흔들리지 않는다!  
정식하고 깨끗한 기업 한라건설이 아파트를 짓는 철학입니다.  
우아한 기품 속에 변함없는 가치가 빛나는 대한민국 명품 아파트- 한라 비발디

한라건설  
www.hallaspt.co.kr  
www.halla.com